

초고층아파트식 재개발 그만 중·저층으로 '삶의 질' 지켜야

광주 도시주택 미래와 방향 심포지엄

앞으로 광주지역에서 주거지역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낡은 집들을 열고 초고층아파트를 짓는 전면일괄식 방식을 중지하고 기존 지역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중·저층 주거지역 재개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배웅규 교수는 1일 광주시 주최로 열리는 광주 도시주택의 미래와 방향 심포지엄에 앞서 미리 배포한 '좋은 도시를 위한 주거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우선 주거재생 방식을 광주에서 도입할 경우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하는 일방향적 접근에서 탈피해 주민들이 참여해 지자체와 개발방식을 협의하는 쌍

방향 접근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주민의 경우 주거 정비과정 전 단계에 참여하고, 지자체는 개발 지원업무를 맡는데 이어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등 3대 주체가 각각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심재생 사업의 핵심은 기존의 효율성과 경제성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지속가능성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새로운 주거에 재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삶의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한편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가 제시한 바람직한 주거재생 기법은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생활권 형성 ▲거주자의 일상과 연결된 도심 공간 조성 ▲도시맥락을 고려한 주거계획 등이다.

배 교수는 "가장 좋은 주거지 재생 방법은 기존 주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획일적인 물리적 정비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훈 조용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상준 동신대 교수, 이영석 광주대 교수, 오세규 전남대 교수, 장삼근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이 패널로 참석, '도시주택의 미래와 방향의 관점에서 바라본 광주시 도시주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웃사랑 열기 후끈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이름다운 가게 쌍촌점'에서 열린 행복나눔장터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서구청이 주최하고 아름다운 가게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서구청 직원들이 지난 15일부터 수집한 도서, 의류, 신발 등 6천여점이 전시됐다. 이날 판매된 수익금 630만원은 난치성 환자 등에게 전달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병원 비상진료·당번 약국 가동 쓰레기는 설날 빼고 계속 수거

설연휴 생활안정 대책

광주시는 설을 앞두고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 급수·가스, 의료, 청소·환경 등 분야별로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비상진료체계 가동=6일부터 10일까지 님대동안 비상진료선진화 표준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부터 공공시설물 설치에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 달초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해 장애인 콜택시 차량색상 디자인 개발, 하남3지구 택지개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등 9개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화수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해 문화전당권 주변의 공공시설물 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각 구 보건소는 연휴기간 중 설날 당일에만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시와 자치구에는 진료대책상황실이, 1399 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운영된다.

◇쓰레기 처리=시는 연휴기간 동안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미화원들을 설날(7일) 당일에만 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설 전날인 6일 아침 수거시간까지 모두 내놓고 설날 발생한 쓰레기는 다음달인 8일에 배출해야 한다.

시는 오는 4일 각 구청별로 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설맞이 시가지 대청소를 실시하고 시립묘역과 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10일까지 청결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市 설성수품 직거래 장터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운영

설 성수품을 잔값에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민원인 주차장 진입도로에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개장, 1일까지 이를 동안 운영한다.

판매 행사에는 서창농협, 황금주한과, 밀알식품, 시루연, 영광수산 등 5개 업체에서 출품한 한과, 약과, 쌀과자, 참기름, 깨, 제주용 나물, 영광 굴비, 멸치, 김 등이 전시된다.

광주시가 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불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맞춤형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전문 진화대원 47명, 산림보호 감시원 25명을 배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 5개 구청 및 7개 기관에서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 공공디자인조례 전국 첫 시행

市, 오늘부터...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적용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제정·공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와 함께 문화전당권 주변의 공공시설물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과 창의성, 쾌적성 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광주만의 도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장기적

종합플랜이 될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 위촉, 시범가로 선정 및 지원,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가로등·벤치·벤치·사실안내표지판·휴지통·가로판매대 등 통합디자인이 필요하고 도시 미관

에 영향을 큰 공공시설물 7~8개를 선정해 표준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부터 공공시설물 설치에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 달초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해 장애인 콜택시 차량색상 디자인 개발, 하남3지구 택지개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등 9개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화수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해 문화전당권 주변의 공공시설물 개선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정후식기자 who@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80-8114 환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담 당직변호사(1일) 233-3119 강동국 370-0600 법무사회 법률상담(1일) 370-0600 조윤석	기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위원회 상설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민청원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원민원상담 광주진남병원무형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8-9881	학교폭력 국민청원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민청원 1366 여가동수사대 (광주) 229-0118 (충북)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Sense Wood 신제품가구 80~70%

실
본
사
지
원

Sale